GGM 노조 억지 요구 '파국' …하반기 공개채용 멈췄다

노조, 민주당·현대차 본사 상경집회
5년째 이어온 공채 올해부터는 중단
"생산 보장 안되면 기업 외면 받을 것"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이어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결국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우려가 제기된다.

갈등이 지속된다면 위탁 물량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더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최신 설비 공장을 다른 기업에서도 외면해 폐쇄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GGM 등에 따르면 이날 GGM 노조는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업인 만큼 GGM 사태를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질적 GGM 운영 주체로 현대차를 지목하면서 "생산·판매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노조 활동 보장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스스로 무산시켰던 '2교대 도입', '캐스퍼 외 제품 추가 위탁'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입사시 스스로 서명한 상생 협정서는 부정하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안'까지 거부했던 것에 이어 고객사와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GGM을 파국으로 몰고있다는 비난이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GGM 채용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캐스퍼 양산이 시작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공개채용이 멈추게 됐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준수됐다면 올해 2교대에 돌입한 뒤 계획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350여 개에 달했다.

일부 노조의 잇속챙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GGM 설립 이념을 지킬 수 없게 된 셈이다.

고객사를 향한 추태에 현대차가 추후 캐스퍼마저 다른 완성차 공장에 위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캐스퍼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되는 등 흥행중이다. 국내 소비자는 출고까지 1년, 해외에서는 3개월 이상 소요될 만큼 생산도 밀려 있다.

소형차인 만큼 국내 대부분 자동차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한데 '노조 리스크'가 이어지는 이상 GGM의 생산량을 늘릴 확률은 희박하다.

게다가 기아, 해외 완성차업체들도 노조리스크에 생산량 보장이 안되는 GGM을 외면하고 결국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한 공장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13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실시했다. GGM노조 제공

자동차산업 관련 교수는 "완성차 대기업 임금에 비해 경차 판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캐스퍼 등 경차는 대부분 위탁 생산을 맡긴다"면서 "GGM이 노조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상생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대차에서 더이상 GGM에 생산을 맡길 이유가 없다. 같은 이유로 GGM이 추후 국내·외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내 첫 노사민정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GGM은 지난 1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결렬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수개월간 이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GGM 경영진과 노조 모두에게 GGM 설립 시 노사민정이 합의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준수와 노사 문화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노조는 파업권을 잃을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TP '1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FGI 협의체'

위기대응 위한 실질해법 모색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2025년 1분기 전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FGI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나주 오량·노안 농공단지와 순천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등 에너지 산업 관련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FGI 협의체에는 전남도,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부 지원사업 소개 △기업의 위기 상황 체감도 △내·외부 애로사항 및 정부 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청년 채용의 구조적 어려움 △국내 수요처 발주 감소 등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오익현 전남TP 원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 악화 속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과 수요 위축, SW 개발자 확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FGI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해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2개 시·도에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홍승현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중기부, 중기·소상공인 유동성 보강 4조2천억 공급

정책자금·기술보증기금 등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추경 4조 2,000억 원을 더해 총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등 총 5,000억 원 규모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 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 등이 책정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설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오는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그 외 보증 상품들은 연중 상시 지원중이며 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지점(고객센터 02-1544-1120), 지역신용보증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비대면앱(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홍승현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불갑산 하이패스IC 개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3일 서해안고속도로 함평나들목과 영광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불갑산 하이패스 나들목(서울방향)을 개통했다.

불갑산 하이패스 나들목 서울방향은 한국도로공사와 영광군이 2023년 3월에 착공해 총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통으로 영광군 지역민과 주요 관광단지 방문객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순환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 주차장 · 신설도로 등 포장공사
저렴한 가격

● 환경신기술 제455호 검증 189호
- 건설오니의 탈수 · 건조시설
▶ 친환경마크 인증
- 순환골재(보조기층용) - 순환아스콘(리바콘)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 순환골재 품질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가족친화기업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CSR 10대 우수기업 선정

▶ 상온순환아스콘 생산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골재석별 파쇄업
- 쇄석골재 판매
▶ 성토 · 복토 공사업
▶ 포장 공사업
▶ 비계구조물 철거공사업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석면조사 · 분석해체 전문업
▶ 조경식재업
▶ 폐목 · 임목 재활용업(톱밥생산)
▶ 기계설비 공사업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CHEON JI 천지환경(주)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영로 1685-15
TEL. 061-323-1882 / FAX. 061-323-5881

홍농조경건설(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69
TEL. 061-323-3239/ FAX. 061-323-5881